

중국 청나라 장식도자 기형을 적용한 칠기작품디자인

추 완 려¹, 정 해 조², 김 정 호^{†,1,3}

¹공주대학교 대학원 조형디자인학과, ²배재대학교 칠예과, ³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A Design of Ottchil Products, Chinese Qing Dynasty Decorative Ceramic Deformities

ZouWanli¹, Hae Cho Chung², Chung Ho Kim^{†,1,3}

¹Graduate School of Formative Design,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32588, Korea

²Department of Lacquer Baejae University, Daejeon 35345, Korea

³Department of Formative Design,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32588, Korea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shape of the bottle, the Chinese Qing Dynasty porcelain decoration. Consideration given to understand the basic form of the catheter, and the basic division. To study the binding form to the principles of the design work to prepare a lacquer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btained here. When classified by type illness Qing Dynasty porcelain decorative porcelain six types, semi-porcelain could be classified into five types. Production form to pursue work in this study design is produced in the form of asymmetrical vases object type curve. These bottles of Qing Dynasty porcelain for decoration. The basic type of pottery types and selected six of its basic and applied work. Production design work was produced Hyupjeotae production techniques that facilitate formative representation.

Keywords: Ottchil, molding technology, ceramic type, bottle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도자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은 경덕진(景德鎮)이다. 경덕진의 도자기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도자기의 수준이 또한 높은 경지에 이른 시기가 청(淸)나라 시대이다. 청나라는 명(明)나라 시대의 막중한 세력과 부패로 혼란해지면서 1616년 후금(後金)이라는 나라를 세운 만주족에게 1644년 멸망당하고, 만주족에 의해 나라가 세워진다. 이렇게 해서 19세기 초까지 중국을

다스리게 된 만주족은 중국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창출하였다.

형태는 조형을 이루는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하며 제품의 외형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형태는 형태의 구성요소 조합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이루며 이는 곧 사용자의 인지반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조형작품 제작에서 형은 다양한 형태인자에 의해 형성된다. 좋은 형태의 창출은 조형작품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것이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형태라 하더라도 고차원적인 시·지각에 입각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형태를 이루는 기초는 점, 선, 면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조합과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복합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 인간은 시각을 통해

2016년 9월 25일 접수; 2016년 10월 17일 수정; 2016년 10월 17일 게재확정

† 교신저자 : 김 정 호 (chkim2@kongju.ac.kr)

이것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조형작품 제작에 있어서 형태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조형작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의미 있는 형태를 창출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되고 시각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조형작품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은 형태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도자 역사상 가장 탁월하게 발달하였던 청나라시대 장식도자 기형을 조사·분석하여 그 시대 장식도자기의 기본형을 찾아, 그것을 응용하여 칠기작품디자인의 조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 청나라시대 장식용 도자기를 고찰하여 그 특성과 기본형을 파악하고, 파악된 기본형을 분할·접근·결합의 원리로 형태를 디자인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중국 청나라시대 장식도자의 조형요소를 기본으로 칠기작품에 그 형태를 적용하여, 청나라 도자기의 형태를 담은 칠기 작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조형요소 중 형태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 청나라시대 장식용 도자기 중 병(瓶)과 존(尊) 도자기의 형태를 고찰하고 분석하여 디자인을 선정한다. 그 진행과정과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첫째, 자료조사와 각종 문헌을 통하여 청나라 장식도자의 조형 형태를 정리한다.

둘째, 수집된 자료와 문헌을 통하여 중국 청나라시대 장식도자기 중 병, 존 도자기를 고찰하고, 분석하여 그들 기형의 특징과 유형을 파악하고, 기본형을 모색한다.

셋째, 모색된 중국 청나라시대 장식도자기 기본형을 분할·접근·결합 등의 원리로 실험하여 연구디자인 제작에 기초자료를 얻는다.

넷째, 실험을 통하여 얻어낸 자료를 근거로 중국 청나라 장식도자 기형을 적용한 칠기작품을 디자인 한다.

2. 청나라시대 장식도자의 조형적 특성

2.1. 사회적 배경

청나라시대 도자기가 가장 탁월하게 발달한 시기는 강희(康熙), 옹정(雍正), 건륭(乾隆)시기인데 이들 시기의 장식용 도자기의 형태 특징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강희시기의 장식용 도자기는 대부분 형태가 수수하고 몸체는 비교적 두꺼우며 무겁다. 옹정시기의 장식용 도자기는 강희시기의 순박하고 우둔함의 형태를 떠나 가볍고 깔끔하고 우아하며 정밀하고 외형 선은 부드럽다. 몸체의 재료는 아주 신중하게 선택되었고 벽은 얇고 가벼우며 빛에 비취보면 반투명으로 은은한 청색이 나타난다. 건륭시기의 장식용 도자기는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나, 너무 번잡하고 조잡하다. 그 이후 시기부터는 도자기의 외형이 우둔하고 깔끔하지 않으며 경직되고 딱딱해 진다. 청나라 말기의 장식용 도자기는 더욱 거칠고 두껍고 유약의 도포도 얼룩지고 울퉁불퉁하다. 경덕진 관요도 함풍(咸豐)시기부터 훼손당하기 시작하여 청나라시대 마지막 시기인 선통(宣統)시기에는 당시의 형세와 경비부족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된다.

강희시기의 도자는 청화(青花)가 여전히 제작되었는데, 명시대의 청화보다 빛깔이 선명하고 아름답다. 이 시기의 청화는 간혹 흑색, 자색, 흑홍색이 나타난다. 경덕진은 명대에 이어 여전히 명성을 누리면서 관요와 민요가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강희시기의 경덕진 관리 감독이었던 장응선에 의해 취홍, 취청, 요황, 요자, 요록 등이 시도되었다.

옹정시기에 오면서 분채, 법랑채가 출현하여 화려한 유상채의 절정을 이룩했고, 건륭시기에는 기묘하고 감탄할 만한 도자기 제작기술로 기교 넘치는 조형이 도자기에 시도되면서 완벽한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2.2. 장식도자의 조형요소

형태를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형태는 그것이 구성되어진 재료와는 대비되는 물체의 외관이다’ 또는 ‘형태는 한정되어 있고 변화에 지배받는 특징과 대조되는 바로 그 상태의 것을 만드는 영구적인

사실성이다’, ‘주어진 대상에 있어서 그 대상에 소요되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은 그 물질이고, 그 물질을 배열하고 구조화한 것이 형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형태가 내포하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조 2003).

평면적 구성과 3차원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형태는 공간의 역학적 관계에 의해서 순수형태와 현실적 형태로 분류하고, 현실적 형태는 자연적 형태와 인위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청나라시대 상퇴형 병도자기의 형태는 목이 짧고 몸체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늘어지는 전체적인 형이 마치 방망이와 같다. 청나라시대에는 복부가 둥근 유추병(油錘瓶) 도자기와 각종 작은 병도자기들이 유행하였다. 이들 병도자기들은 버드나무 잎을 연상케 하는 유엽병(柳葉瓶)을 비롯하여 자연물의 형태를 다양하게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청나라시대 준 도자기는 술 단지나 물그릇으로 사용하였으며, 장식용 준 도자기도 있다. 청나라시대 준 도자기는 몸체가 사발을 엮어 놓은 것 같으면서 하부가 넓은 태백준(太白尊)과 주둥이와 어깨가 넓고 목이 짧으며 몸체의 하부가 좁고 굽이 바깥쪽으로 빠져진 관음준(觀音尊) 그리고 종모양의 종준(鐘尊)도자기 등이 있다.

건륭시기로 오면서 장식용 도자기는 화려함의 절정을 보여 주는데 병에 쌍귀(雙耳)를 부착시키거나 용(龍), 사슴, 양, 코끼리 등의 각종 동물의 형태를 부착시킨 병도자기들도 등장한다. 또한 병을 서로 붙여 만든 삼련병, 사련병, 오련병, 육련병 도자기 등도 성행하였다.

3. 청나라 장식도자의 적용 사례

3.1. 청나라공간과 장식도자스타일

도자기분야에서는 명나라시대의 화려했던 채자(彩瓷)시대를 더욱 완벽하게 발전시켜 절정의 도자기 시대를 만들었다. 유상채(釉上彩) 도자기로는 분채, 법랑채, 만화채 등의 새로운 기법이 출현하였고, 단색유의 도자기도 홍유(紅釉)계통의 량요홍, 강두홍, 계홍, 취홍 등의 도자기와 청유(靑釉)도자기, 그리고 흑색의 오금유(烏金釉) 도자기가 창조

되어 생산되면서 도자기의 황금시대를 이룩하였다. 청나라시대의 도자기의 절정기는 강희(康熙),雍正(雍正), 건륭(乾隆)시기로 정치력이 강력했던 시기와 같이한다.

옹정시기에 오면서 분채, 법랑채가 출현하여 화려한 유상채의 절정을 이룩했고, 건륭시기에는 기묘하고 찬탄할 만한 도자기 제작기술로 기교 넘치는 조형이 도자기에 시도되면서 완벽한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3.2. 청나라 환경요소의 분석

3.2.1. 병도자기 형태 분석과 기본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나라시대에는 유추병 도자기와 작은 병도자기들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병도자기의 형태를 분석하여 형태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Table 1과 같다.

이상과 같이 청나라시대 장식용 도자기 중 병도자기 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해 본 결과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Table 1과 같이 유형별로 분류된 병도자기 형태의 공통점과 유사점 그리고 유형별 형태 특징을 파악하여 기본형을 모색한 결과와 유형별 기본형을 얻을 수 있다.

이들 형태의 유형별 기본형 특징을 살펴보면 Table 1에서와 같이 상퇴형 병도자기는 목이 짧고 몸체보다 가늘며 복부는 길죽하고, 바닥은 평평하다. 몸체 전체적인 모양이 팔래용 방망이와 비슷하다하여 상퇴병 또는 통병이라고 부르고 있다. 상퇴병은 원, 방, 연 등으로 나눈다. 원방추는 주둥이가 접시모양이고 목이 짧으며 어깨는 둥글고 통형복부이다. 방방추는 짧은 목과 평평한 어깨로 위는 넓고 아래는 좁다. 연방추는 목이 좁고 직선형으로 아래 복부는 약간 수축되었다. 쌍이형은 주둥이가 외반 되고 목이 가늘며 배가 처져 있다. 장경형은 주둥이가 작고 목 위는 가늘고 아래는 두꺼우며 복부가 둥그렇다. 등롱형 유형의 병도자기는 입구가 외반 되어 있고 목이 가늘고 길며, 어깨가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어깨에서 허리불이까지 흘러내린 배와 허리의 선은 자연스럽다. 복형은 입구의 입술이 두껍고 몸뚱이의 배 부분이 불룩하다. 목에

Table 1. Cases of shape and type for vase

이미지	내 용
상퇴형 (象腿形)	 <p>코끼리 다리형 유형의 병도자기는 목이 짧고 몸체보다 가늘며 복부는 길쭉하고 바닥은 평평하다. 몸체 전체적인 모양이 빨래용 방망이와 비슷하다 하여 방추병 또는 통 병이라고 부르고 있다.</p>
쌍이형 (双耳形)	 <p>짐승의 양쪽 귀 형태 유형의 병도자기는 주둥이가 외반 되고 목이 가늘며 배가 처져 있다.</p>
장경형 (長頸形)	 <p>목이 긴 형태 유형의 병도자기는 주둥이가 작고 목 위는 가늘고 아래는 두꺼우며 복부가 둥그렇다.</p>
등롱형 (燈籠形)	 <p>등잔 형태 유형의 병도자기는 입구가 외반 되어 있고 목이 가늘고 길며, 어깨가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어깨에서 허리까지 흘러내린 배와 허리의 선은 자연스럽다.</p>
복형 (腹形)	 <p>배 형태 유형의 병도자기는 병 입구의 입술이 두껍고 외형의 배 부분이 불룩하다. 목에서 어깨를 거쳐 배로 흘러내린 선과 배에서 허리를 지나 허리까지 흘러내린 외형 선은 서로 비슷하고 자연스럽다.</p>
매형 (梅形)	 <p>매화나무 형태 유형의 병도자기는 입이 작고 목이 짧게 서 있으며, 어깨가 서서히 벌어졌다가 허리에서 다시 좁아지는 형태이다. 병의 작은 입이 매화를 꽃기에 알맞기 때문에 매병이라 부르고 있다. 매병은 전체의 모습과 입의 형태로 시대를 알 수 있다.</p>

서 어깨를 거쳐 배로 흘러내린 선과 배에서 허리를 지나 허리 붙이까지 흘러내린 외형 선은 서로 비슷하고 자연스럽다. 매형은 입이 작고 목이 짧게 서 있으며, 어깨가 서서히 벌어졌다가 허리에서 다시 좁아지는 형태이다. 병의 작은 입이 매화를 꽃기에 알맞기 때문에 매병이라 부르고 있다. 매병은 전체의 모습과 입의 형태로 시대를 알 수 있다. 청나라시대 병도자기 형태의 기본형을 살펴본 결과 기능적으로 술이나 물을 담아두기에 적합하게 병 목이 좁게 만들어졌으며, 편병, 주병, 매병, 정병 등의 형태 형식을 갖추고 있다.

3.2.2. 준 도자기 형태 분석과 기본형

청나라시대 도자기 중 준 도자기는 술 단지나 물그릇으로 사용하였는데, 장식용 준 도자기도 있

다. 청나라시대 준 도자기는 몸체가 사발을 얹어 놓은 것 같으면서 하부가 넓은 태백준과 주둥이와 어깨가 넓고 목이 짧으며 몸체의 하부가 좁고 굽이 바깥쪽으로 빠져진 관음준 그리고 종모양의 종준 도자기 등이 있다.

준 도자 형태를 분석하여 형태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Table 2와 같다.

이상과 같이 청나라시대 장식용 도자기 중 준 도자기 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해 본 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Table 2와 같이 유형별로 분류된 준 도자기 형태의 공통점과 유사점 그리고 유형별 형태 특징을 파악하고 기본형을 모색한 결과와 같이 유형별 기본형을 얻을 수 있다.

이들 형태 유형별 기본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Table 2. Cases of decorated and patterns for wine vessel

이미지	내 용	
빈과형 (蘋果形)		사과 형태의 유형별 준 도자기는 입구가 두껍고, 목이 없으며, 몸체가 풍만하고 둥글다. 형태가 작고 사과와 비슷하여 병과 준이라고 부른다.
쌍이형 (雙耳形)		짐승의 양쪽 귀 형태의 유형별 준 도자기는 입이 외반 되고 목이 짧으며 어깨가 풍만하고 어깨부터 내려진 외형 선은 점점 안쪽으로 줄어들며 굽다리는 밖으로 기울어져 있다.
마제형 (馬蹄形)		말의 발굽 형태의 유형별 준 도자기는 주둥이가 넓고 둥글며, 어깨는 처져 있고 배는 넓으며 바닥은 평평하다. 기형은 마치 말발굽 모양과 비슷하다.
봉미형 (鳳尾形)		봉황의 꼬리 형태의 유형별 준 도자기는 주둥이가 꽃잎처럼 매우 외반 되어 있고, 몸체의 외형선과 어깨부터 허리끝까지 흘러내린 몸체의 외형 선은 매우 부드럽고 아름답다.
수이형 (獸耳形)		짐승의 귀 형태의 유형별 준 도자기는 입술이 두껍고 꽃모양 같이 밖으로 외반 되어 있으며, 어깨가 넓고 배가 비대하며 내부로 깊다.

Table 2에서 보듯 빈과형 준 도자기는 입구가 넓고 두꺼우며 목이 없으며, 몸체가 원과 같이 둥글다. 크기가 작고 사과와 비슷하다고 하여 빈과 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쌍이형은 입이 밖으로 들어나며 목이 짧고 어깨가 풍만하고 외형 선은 점점 안쪽으로 줄어들며 굽다리는 밖으로 기울어져 있다. 마제형은 주둥이가 넓고, 어깨는 아래로 기울어져 있고 바닥은 평평하다. 그릇의 형태는 말발굽 모양과 비슷하다. 봉미형은 봉황의 꼬리 모양으로 주둥이가 밖으로 도드라져 있고, 몸체의 외형선과 어깨부터 허리까지 흘러내리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외형 선을 나타내고 있다. 수이형 준 도자기의 입구는 두툼하고 밖으로 많이 외반 되어 있으며, 어깨와 배가 넓고 비대하며 내부가 깊다.

4. 디자인 제안

4.1. 디자인 진행과정

디자인될 작품의 주제는 화병이고 용도상 꽃을 꽂는 기능에 충실하면서 오브제적인 성격을 띤 장

식적이고 조형적인 면에 역점을 두고 제작하고자 한다. 형태 제작은 중국 청나라시대 장식용 도자기 중 병, 준 도자기 형태의 기본형을 분할·접근·결합의 원리로 비대칭적인 형태를 만들어 조형미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작품 디자인은 일상적인 사물이 선택되어 창조 행위를 통해 인간과 물체 즉, 생활과 예술의 결합이라는 관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조형예술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물체의 의미를 시각적 조형대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순수 조형적인 경향으로 발전하고, 실용적인 기물의 형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조형으로서 생활요구의 기능적인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단순한 시각적 대상으로서의 물체인 오브제가 된 것이다. 병, 준 도자기 형태에서 얻은 화병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도 단순히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으며 하나의 조형 작품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작품 제작에서 추구하는 제작 형태는 청대 장식도자 기본형을 도입하며 곡선으로 비대칭적인 오브제 형식의 화병 형태이다. 이러한 본 작품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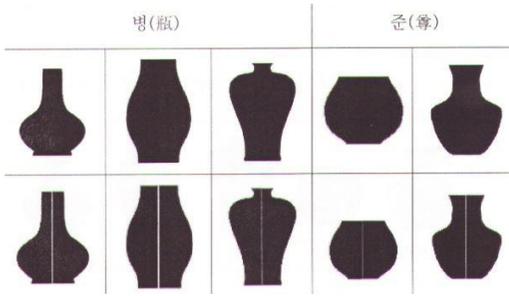


Fig. 1. Development of the division for base.



Fig. 2. Development of approaches and combine for base's choice.

격에 적합한 중국 청대 장식용 도자기 형태 유형의 기본형을 병과 준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이들을 기본형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본형을 이용하여 연구 작품 제작을 위한 형태를 얻기 위하여 기본형을 분할하고, 접근시키거나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전개한다.

4.1.1. 분할의 전개

Fig. 1과 같이 선정된 병, 준 도자기 형태 유형의 기본형을 좌우 대칭으로 2등분하고, 등분된 좌우의 형태를 연구디자인 제작 형태의 한 단위로 한다.

4.1.2. 접근과 결합의 전개

Fig. 2는 선정된 기본형을 좌우로 대칭되게 2등분하고, 2등분된 우측 형을 분할된 다른 기본형으로 교체하여 접근시켜 결합한다.

지금까지 중국 청나라시대 장식용 도자기 중 병, 준 도자기 형태를 분류, 분석하여 기본형을 찾았다. 모색된 기본형 중 연구자가 추구하고 있는 작품성향에 적합한 기본형 6가지를 선정하여 분할·접근·결합의 원리로 준과 병을 결합한 디자인 진행과정을 통하여 작품제작에 필요한 결과물을 얻는다(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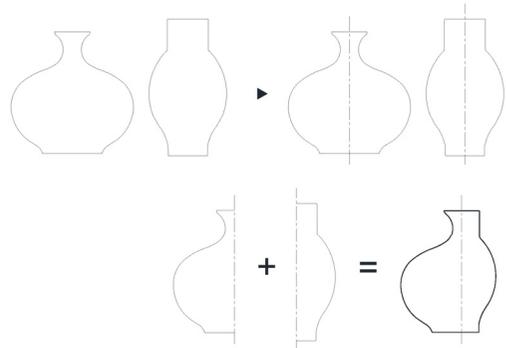


Fig. 3. Process of design's progress for one work's shape ch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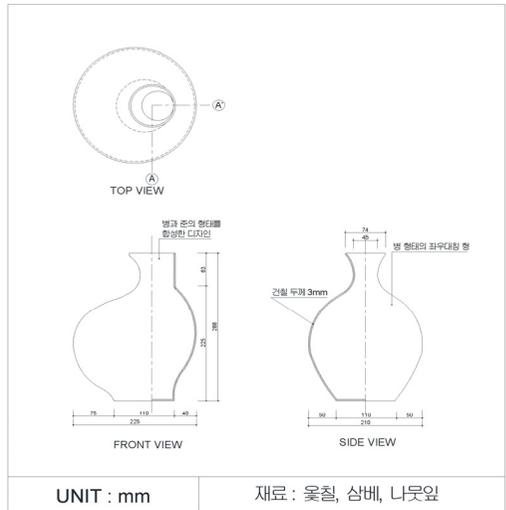


Fig. 4. Drawing.

4.2. 디자인 도면

형태는 조형을 이루는 요소들 중 가장 중요하고 제품의 외형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며 좋은 형태의 창출은 조형작품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조형작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의미 있는 형태를 창출하느냐에 맞추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되고 시각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조형작품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칠기작품 제작의 주안점을 형태에 두고, 선조들이 남겨 놓은 도자기유물 속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형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기반으



Fig. 5. Mock-up for works.

로 칠기작품을 제작한다.

이러한 옷칠 작품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현대 성과 조형성이 강한 곡선과 비대칭적인 형태가 필요했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중국 도자기 역사상 가장 탁월하게 발달하였던 청나라시대 장식용 도자기 형태를 적용하였다(Fig. 4).

4.3. 디자인 결과물

본 작품 Fig. 5의 형태는 중국 청나라시대 장식용 도자기 중 병도자기 기본형과 준 도자기 기본형을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좌우로 대칭되게 2등분으로 분할하고, 2등분으로 분할된 각 기본형의 좌우 형을 접근시키고 결합하여 본 조형작품의 형태로 삼았다.

장식은 검정색 옷칠 도막 위에 느티나무 잎을 이용하여 양각으로 시문하였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나뭇잎 위에 여러 가지 색의 옷칠을 올린 다음 기형에 시문하여 사실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무늬 배치와 반복과 연속적인 율동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다.

시문된 기형 위에 투명옷칠로 4회 덧칠하고 광택을 내었다. 투명칠을 칠할 때마다 느티나무 잎의 짙었던 부분을 갈아서 높이의 변화를 주어 깊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느티나무 잎의 크기를 달리 하여 시각적으로 공간의 차이를 형성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는 형태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 청나라시대 장식용 도자기 중 병, 준 도자 형태를 고찰하여 기본형을 파악하고, 기본형을 분할·접근·결합의 원리로 형태를 연구하여 여기에서 얻은 결과를 근거로 칠기작품디자인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중국 청나라 시대 도자기가 가장 탁월하게 발달한 시기는 강희, 옹정, 건륭시기인데 이들 시기의 장식용 도자기의 형태 특징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강희시기는 대부분 형태가 수수하고 몸체는 비교적 두껍고 무겁다. 옹정시기 장식 도자는 대부분 가볍고 깔끔하고 우아하고 정밀하며 외형선이 부드럽다. 건륭시기 장식 도자는 대체로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으나 너무나 번잡하고 조잡하다. 그 이후 청대 말기에는 장식 도자 외형이 우둔하고 깔끔하지 못하며 경직되고 딱딱하다.

둘째, 청나라시대 장식용 도자기 중 병, 준 도자 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병도자기는 6가지 유형, 준 도자기는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 작품디자인 제작에서 추구하는 제작형태는 곡선으로 비대칭적인 오브제형식의 화병 형태이다. 이를 위하여 청나라시대 장식용 도자기 중 병, 준 도자기 형태 유형별 기본형을 파악하고 그중 6개의 기본형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기본형을 분할·접근·결합의 방법으로 전개하여 작품디자인제작에 필요한 결과를 얻었다.

넷째, 작품디자인 제작은 조형표현이 용이한 협저태 제작기법으로 제작하였다. 그 방법은 삼베를 호칠로 여러 겹 발라 태를 만들고 그 위에 옷칠을 입히고 장식하는 방법이다.

이번 칠기작품디자인 제작과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물이 옷칠세계의 새로운 학문적인 체계 구축과 오늘날 옷칠세계에서 각별히 요망되고 있는 새로운 조형사고와 조형기술을 개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박영규. 1982. 한국의 목가구. 삼성출판사.
- 여정은. 2007. 가변형 옷칠 테이블 개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욱. 1993. 중국도자사. 미진사.
- 이종석. 1996. 한국의 목공예사.
- 정해조. 2006. 나전장. 국립문화재연구소.
- 조성근. 2003. 3차원 기초조형에 있어서 상호교차 형태와 기하학적 구조분석. 한국조형학회 21: 243-245.